

전남형 공공어린이놀이시설 구축 시설·프로그램 민간과 차별화 필요

전남도 지원 조례안 도의회 통과 전남연구원 실효성 제고 정책 제안

전남도내 어린이들이 모여 놀 수 있는 장소가 31곳에 불과해 7세 미만 아동 1만명당 3.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형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을 우선 정립하고, 민간 영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시·군 및 민간 공모 사업에 나서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전남연구원은 2일 'JNI 이슈리포트'에서 '전남형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구축을 위한 과제'를 다루며 전남 시·군 아동의 놀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원활한 구축과

운영 방향을 제안했다.

박원중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11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남도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남형 공공놀이시설 조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연구원은 국내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운영 사례를 제시하며, 민간 영역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차별화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시흥시 '숨쉬는 놀이터'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형 실내의 놀이공간을 조성했고, 남양주시 '도르르'는 아동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 놀이활동이 특징인 '이탈리아 레지오 에밀리아 유치원'

의 교육법을 활용해 전국 최초 영유아 전문 놀이터로 자리매김했다.

또 공동육아, 상시 부모교육, 공동체 학습모임 등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내 보육·유아교육 기관, 전문가, 대학 등과 적극적인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미경 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돌봄, 보육 등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유아·아동 발달과정에 필요한 교구, 프로그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공간 자체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녹색에너지, 아프리카 그린수도 세미나 참석

전남의 그린수소 현황·계획 발표

(재)녹색에너지연구원(원장 주동식)은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와 서아프리카 개발은행(BOAD)이 공동개최한 'UNEP CTCN 아프리카 지역 그린수소 역량강화 세미나'에 참석해 전남의 수소산업의 발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아프리카 베냉 코토누에서 열렸으며, 글로벌 역량 강화 행사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지역 16개국에서 약 30여명의 참가자가

모여 그린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에 대한 기술 공유와 국가별 그린수소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동식 원장은 "이번 아프리카 지역 그린수소 역량 강화 세미나에 참석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후 변화 대응과 국가 수소경제 정책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앞으로도 UNEP CTCN의 회원으로써 국제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수소 정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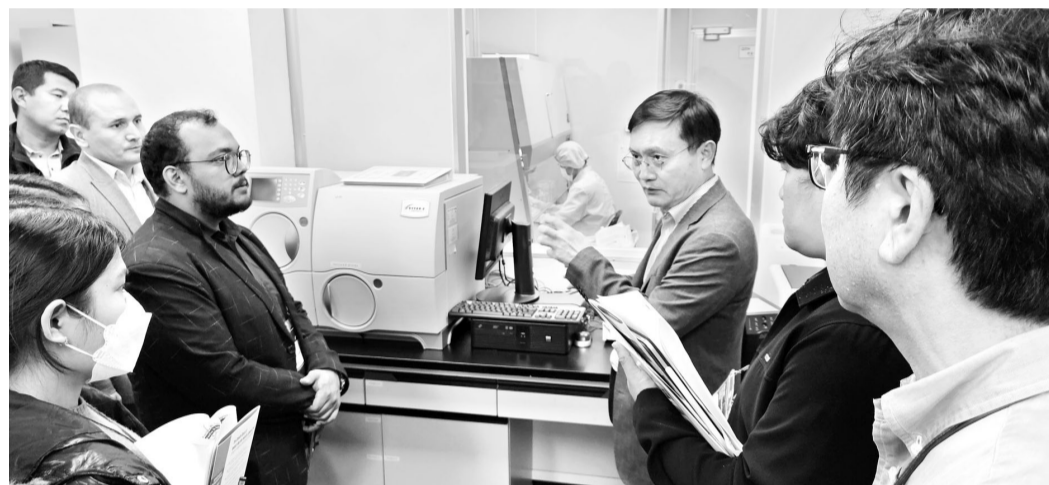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글로벌바이오 화순캠퍼스, 아시아권 바이오인력 34명 교육

전남바이오진흥원 3일 일정

전남바이오진흥원이 지난 2일까지 3일간 글로벌바이오 캠퍼스 교육의 일환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 교육생 34명을 대상으로 GMP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글로벌바이오 캠퍼스는 우리나라가 2022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글로벌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중저소득국가(LMIC) 바이오 생산인력 대상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화순은 올해 7월 7일 글로벌바이오 지역캠퍼스로 선정됐다.

이번 교육생은 아시아 7개 국가의 보건복지부 공무원, 백신생산연구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4명), 파키스탄(4명), 우즈베키스탄(4명), 방글라데시(9명), 인도네시아(4명), 태국(5명), 베트남(4명) 등 34명이다. 이들은 생물의약품연구센터, KTR,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GC녹십자에서 운영중인 GMP 교육시설에서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 동물대체시



험법 등 첨단바이오 교육을 받았다.

윤호열 원장은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역량 축적과 기업유치를 위한 인재육성이 매우 중요하다"하며 "백신 전주기 인프라를 갖춘 화순백신산업특구에 국가·지자체·대학 연계 GMP현장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으

로 대한민국남부권 바이오헬스케어 허브로서 제약·바이오벤처 기업에 우수 인재 공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 3일에는 중국, 이집트, 필리핀 등 해외 식약처 관계자와 국내의 바이오 전문가가 27명이 화순백신산업특구를 방문하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가축분뇨처리 지원 국비 전국 최다

내년 약취개선 등 238억원 확보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가축분뇨처리 지원 공모사업에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23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고흥군의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150억원, 무안군·장성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 22억원, 순천시·나주시·함평군·무안군·장성군 축산약취를 저감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은 가축분뇨 등을 1일 150t 처리해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에너지화 및 펠렛형 퇴비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150억원이 투입되고, 가축분뇨를 다양하게 활용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는 무안군 15억원, 장성군 7억원 등 22억원을 투입해 정화 처리, 약취방지시설 설치 등 퇴·액비 자원화시설의 처리 효율을 개선한다. 축산약취개선 사업은 순천시 15억원, 나주시 18억원, 함평군 7억원, 무안군 11억원, 장성군 15억원 등 66억원이 지원된다.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퇴비사, 정화방류시설, 약취저감시설 등에 많은 사업비가 투입됨에 따라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고 축산약취를 저감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것은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시·군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사전 검토해 완성도를 높이는 등 철저한 준비와 결과로 풀이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방사능 누출 도민 보호체계 강화

전남·전북 일원서 방재 연합훈련

전남도가 지난 1일 영광 한빛원전 3호기의 방사능 누출사고를 가정해 2023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을 전남(영광·무안·함평·장성)과 전북(고창·부안) 일원에서 실시해 도민 보호체계를 강화했다.

2019년 이후 4년만에 실시하는 이번 연합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것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 소방, 주민 등 100여 기관, 3000여 명이 참여했다. 한빛원

전 인공 해역에 발생한 지진(규모 6.0)의 영향으로 중대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원전사고 수습 및 주민 보호조치 등 훈련으로 이뤄졌다.

도상훈련은 전남도 재난종합상황실에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설치하고 방사선비상(백색·적색·적색) 위기경보 단계별 영상회의를 했다. 이는 비상대응정보교환시스템(ERIX)을 활용한 협업 실무관과의 지원·협조 체계를 숙달하는 점검훈련으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현장 훈련은 방사선 적색비상 발령 이후 초동조치의 핵심인 주민보호조치로 ▲방사선비상 경보

상황 전파 ▲옥내대피 및 교통통제 ▲주민 소개(분산) ▲감상생방호약품 배포 ▲이재민 구호 등이다.

주민 소개는 영광 예방적보호조치구역(원전반경 5km 내)인 흥농읍 주민 360여 명이 1차로 대피하고, 사태 확산에 따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30km 내)인 영광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주민 420명이 2차 대피하는 실제 훈련으로 실시했다.

오미경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훈련은 방사능 재난 대응능력과 신속한 주민 보호조치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확립하고 방재체계를 더욱 강화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한 달간 연근해·남시어선 안전점검

전남도가 어업활동 증가와 기상악화로 어선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는 가을·겨울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 연근해어선과 남시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 점검에 나선다.

이번 합동점검에선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해경, 전남도,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구명·기관·전기·소방·무선설비 구비 여부와 작동 상태를 살피고 어선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동절기 화재사고 대비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남시어선의 경우 승선자명

부 작성 여부, 소화기·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와 구명뗏목(13명 이상)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또 선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선원 넘어짐, 끼임, 추락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보호장비 구비 여부도 확인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박영재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가을·겨울철 수온이 낮아지므로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출항 전에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